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과 영향)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의 불투명성 증대	2
2. 무역수지 적자 반전	6
3. 엔고·저주가·저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 반전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과 영향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1월 대일 무역적자폭 축소	16
2.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	19
V.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2. 주요 경제 일정	22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3.3	111.9	111.2*	-
GDP증가율(연율,%)	△0.0	0.4	4.2	△1.4	1.3	△1.4(p)	-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	20.2	15.8	17.3	16.6(p)	-	-	-	-
	공공투자	24.5	-	6.8	4.5	5.4	6.7(p)	-	-	-	-
해외직접투자(조엔)	12.6	-	3.7	4.0	3.8	4.5	1.7	1.4	1.4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2.6	-	△0.3	0.2	0.0	-	0.1	0.1	△0.2	-
	전년동기비	2.6	-	2.1	0.1	△0.1	-	-0.1	0.1	0.1	-
실업률(%)	3.6	-	3.5	3.3	3.4	-	3.1	3.3	3.3	-	
수출(조엔)	73.1	75.6	18.9	18.8	19.0	18.8	6.5	6.0	6.3	5.4	
수입(조엔)	85.9	78.5	20.4	19.1	20.0	19.0	6.4	6.4	6.2	6.0	
무역수지(조엔)	△12.8	△2.9	△1.4	△0.3	△1.0	△0.2	0.1	△0.4	0.1	△0.6	
경상수지(조엔)	2.6	-	4.2	3.8	5.0	3.6	1.5	1.1	1.0	-	
환율	달러	105.8	121.1	119.1	121.4	122.3	121.5	120.1	122.5	121.8	118.3
	원화(100엔)	996	935	923	905	957	953	956	940	963	1,017
금리(10년물,%)	0.55	0.36	0.34	0.40	0.40	0.31	0.31	0.31	0.30	0.22	
주가(닛케이)	15,460	19,203	18,226	20,058	19,474	19,035	18,374	19,582	19,203	17,302	

주: (p)는 1차 속보치 *는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의 불투명성 증대

○ '15.1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1.2 전월비 0.7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하락

○ '15.12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1개월 만에 6,459억 엔 적자로 반전

○ '16.1월 수출은 5조 3,516억 엔 억 엔, 수입은 5조 9,976억 엔

□ (환율) 엔고 지속

○ '16.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8.3엔으로 전월비 2.9% 엔고

* '16.1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17원으로 전월비 5.6% 엔고·원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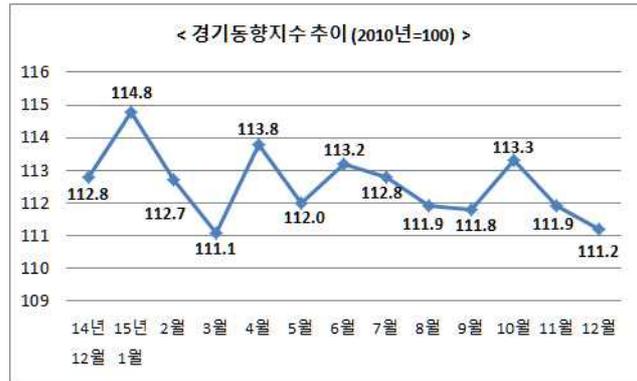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의 불투명성 증대

□ (경기기조 판단)

○ 일본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5년 4분기 GDP의 60%를 점하는 소비와 수출의 감소 등 내수와 외수의 동시 부진으로 1.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일본 내각부가 2월 5일 발표한 2015년 12월 경기동향지수(속보치, 일치지수)도 111.2로 2개월 연속 하락



자료 : 내각부

- 일본 내각부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경기기조 판단을 7개월째 유지

□ (전 망)

- 일본의 많은 싱크탱크들은 2016년 1분기에는 GDP가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엔고 진행에 따른 기업수익의 부진 우려, 금융시장의 혼란 및 해외경제의 감속 등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수개월 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전월보다 1.2p 하락,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 기록
- 더욱이 2015년 경제성장률도 0.4%로 정부의 목표치 2%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이 자체가 0%대 중반으로 낮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다만, 2015년 12월 18일 각의에서 결정된 3.3조엔(GDP의 약 0.7조%)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효과는 앞으로 본격화 될 전망

<GDP>

- 2015.4분기 GDP성장률 -1.4%, 2015년 GDP성장률은 0.4%
- 일본 내각부가 2월 15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실질 GDP(1차 속보치)성장률은 전기비 -0.4%, 연율 환산으로는 -1.4%
 - 3분기의 1.3%의 성장에서 1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
- 전기비 -0.4%의 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5p%, 외수의 기여도는 0.1%p
- 수요항목별로는 소비가 전분기의 0.4% 증가에서 2분기 만에 0.8% 감소로 반전
 - 엔저에 의한 식료품가격 상승 및 실질임금의 상승 둔화로 인한 소비억제, 이상난동으로 인한 겨울용 의류 등의 소비부진 등이 주된 요인
-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견조에 힘입어 갱신수요 등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1.4% 증가, 2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
 - 가격상승을 배경으로 주택투자는 1.2% 감소, 4분기 만에 마이너스
 - 공공투자는 추가경정예산 효과의 일순으로 2.7% 감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수출은 0.9% 감소, 수입은 1.4% 감소
 - 수출은 감소했으나 유가하락을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GDP성장률에 대한 외수기여도는 플러스
 - GDP에서 개인소비가 아니고 수출로 계상되는 방일객의 인바운드 수요는 수출을 지탱해주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2015년 실질 GDP는 전년비 0.4%로 가까스로 전년의 마이너스성장에서 탈출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2.0	△0.6	0.6	1.0	△0.3	0.3	△0.4
전기비연율	△0.0	0.4	△7.9	△2.6	2.5	4.2	△1.4	1.3	△1.4
전년동기비			△0.3	△1.5	△1.0	△1.0	0.7	1.7	0.5

자료: 내각부, (p)는 1차 속보치

<국내 투자>

□ '15.4분기 국내투자 GDP의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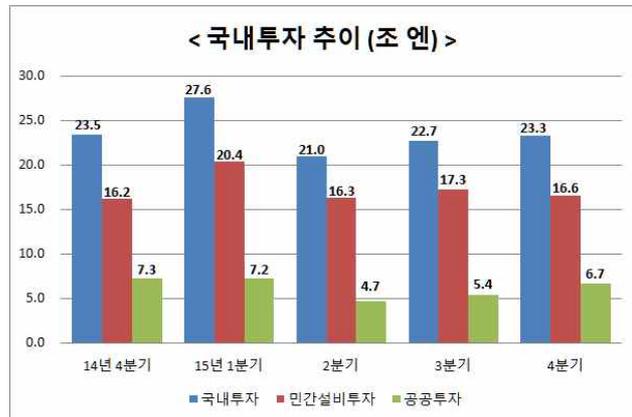
○ '15.4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2.6% 증가한 23.3조엔

- 실질기준으로는 전기비 0.4% 증가

□ (민간설비투자)

○ '15.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4.1% 감소한 16.6조엔, 국내투자의 71.2%를 차지

○ '15.4분기에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호조를 배경으로 실질기준 전기비 1.4% 증가했으나, 최근 엔고 진행으로 인한 기업수익의 감소 우려로 투자판단이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음



자료 : 내각부

○ 다만, 일본은행의 12월 단기경제관측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 대기업/전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도 대비 10.8% 증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

- '15.12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이 전월비 4.2% 증가

○ 일본 내각부는 전월에 이어 설비투자의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기초판단을 계속 유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15.4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3.9% 증가한 6.7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8.8%를 차지

- 그러나 실질기준으로는 전기비 2.7% 감소함으로써 국내투자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 다만, 2015년 12월에 결정된 3.3조엔 규모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공공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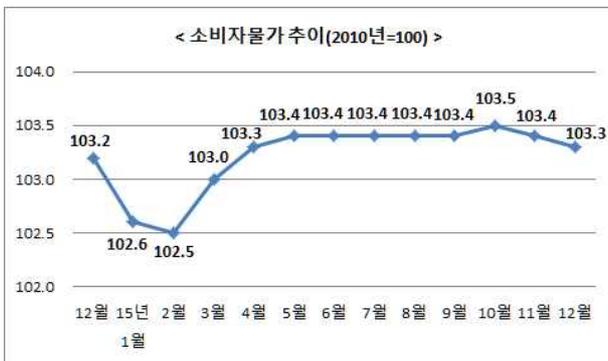
□ '15.1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0.2% 하락

- '15.12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3(2010년= 100)으로 전월비 0.2% 하락
 -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상승
 - 식료품(생선식품 제외)의 상승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유가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품목의 가격하락을 상쇄
- 2015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0.5% 상승, 3년 연속 상승
 - 그러나 2015년 3월까지의 소비세증세 영향이 남아있어, 이 요인을 제외한 실질로는 제자리걸음
- 앞으로 유가하락에 의한 에너지 관련제품의 마이너스 기여는 계속되는 한편, 경기 감속 하에 엔저에 의한 가격전가폭이 감소하면서 기초적인 물가상승속도는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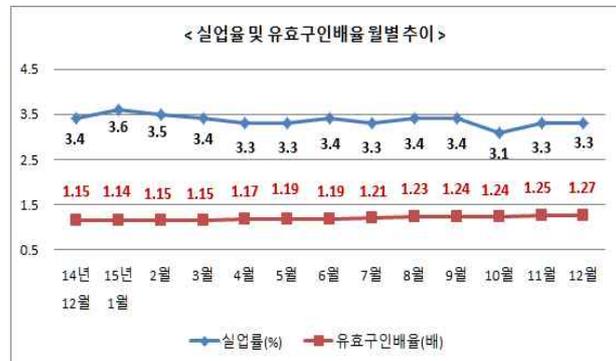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경향 지속

- '15.12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3%
 - 취업자 수는 6,403만 명으로 전월비 45만 명 증가
- 신규 구인 수의 증가로 채용난 계속
 - 15.12월 유효구인배율은 1.27배로 24년 만에 최고수준
-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사정의 개선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적자 반전

□ (총 합) 무역수지 1개월 만에 적자 반전

- '16.1월 무역수지는 전월의 흑자에서 6,459억 엔 적자로 반전
 - 수입의 감소에도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적자 반전의 요인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029억 엔에서 8,136억 엔으로 크게 확대된 한편, 對 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7,583억 엔에서 5,439억 엔으로 크게 축소된 것이 적자 반전에 기여

< 2016년 1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3	-8.0	6.0	5.4	-12.9	-15.6
수 입	6.2	-18.0	-2.6	6.0	-18.0	-3.2
수 지	0.1	-	-	-0.6	-45.0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6.1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1월 수출은 5조 3,516억 엔으로 전월비 15.6% 감소. 전월의 증가에서 반전
 - 수출물량도 전월비 13.8% 감소
 - 세계적인 시황악화와 신흥국의 수요부진으로 인한 철강, 비철금속 등 일본 수출의 25%를 점하는 소재류의 수출부진이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순위 면에서는, 자동차 부품이 전월의 2위에서 4위로 밀려난 반면,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전월의 4위에서 2위로 진입
 - 5대 수출품목 모두 전월보다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26.0%로 가장 크고 이어 원동기, 자동차 등도 20%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

< 2016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1,083	8.6	-1.5	8,689	-1.1	-21.6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042	-13.6	3.0	2,834	-11.2	-6.8
3	철강	2,765	-26.8	7.0	2,311	-31.3	-16.4
4	자동차부품	3,123	-4.2	13.0	2,311	-14.1	-26.0
5	원동기	2,240	-10.5	11.6	1,739	-13.1	-22.4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전월보다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중국경제의 감속의 반영하여 -25.7%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9.3% 감소

< 2016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3,513	-3.4	9.6	11,287	-5.3	-16.5
2	중국	11,571	-8.6	9.4	8,600	-17.5	-25.7
3	ASEAN	9,199	-11.6	4.4	7,735	-20.2	-16.0
4	EU	7,403	3.1	14.3	6,325	-3.6	-14.6
5	한국	4,238	-15.4	10.1	3,844	-17.4	-9.3
6	대만	3,781	-3.7	6.1	3,344	-8.6	-11.6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1월 수입 금액은 감소, 물량은 증가

○ '16.1월 수입은 5조 9,976억 엔으로 전월비 3.2% 감소

- 수입물량은 전월비 0.5% 증가

- 유가하락이 수입액 감소의 주된 요인

○ 5대 수입품목에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 대신에 통신기가 포함된 외에, 의약품과 의류 및 동부속품간 순위가 바뀜

- 통신기와 의류 및 동부속품을 제외한 3개 품목은 모두 수입이 증가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감소폭이 컸음
-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통신기의 수입증가폭이 55%로 가장 컸음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입은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지역·국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14.4%로 가장 크고, 이어 호주, ASEAN, EU, 미국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 큼

< 2016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5,884	-46.7	2.0	4,717	-43.4	-19.8
2	액화천연가스	4,338	-45.6	14.3	3,498	-55.4	-19.4
3	통신기	1,970	-28.0	-27.0	3,069	29.7	55.8
4	의류·동부속품	2,645	-2.9	-1.3	2,658	-9.5	0.5
5	의약품	2,773	68.4	-17.9	2,479	27.8	-10.6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6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5,600	-8.9	-5.4	16,736	-6.0	7.3
2	ASEAN	9,437	-16.0	2.9	9,018	-21.8	-4.4
3	EU	7,520	9.9	-8.9	7,198	6.0	-4.3
4	미국	5,930	-10.1	-10.6	5,848	-9.7	-1.4
5	호주	3,268	-33.2	-1.7	2,929	-37.3	-10.4
8	한국	2,687	-13.5	7.5	2,301	-23.3	-14.4

자료 : 일본 재무성

3. 엔고 · 저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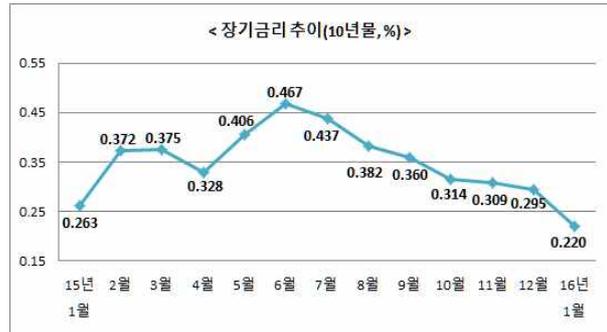
- '16.1월 평균 주가는 국제 유가하락과 중국경제의 감속 등, 세계경제의 불안을 배경으로 전월비 9.9% 하락한 17,302엔
- '16.2월 들어서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용불안까지 겹쳐 하락세를 지속, 2월 24일 기준 15,916엔

□ (금 리)

- '16.1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25.4% 하락한 0.220%
- '16.2월 들어서도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전망과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용불안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일본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너스까지 하락세 강화(국채가격의 급등), 2월 24일 기준 -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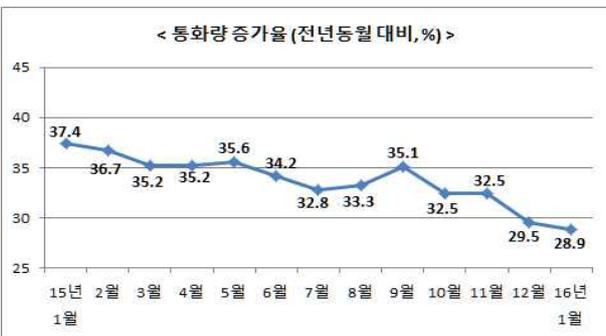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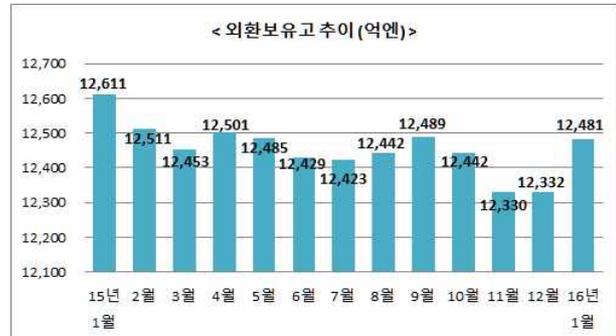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6.1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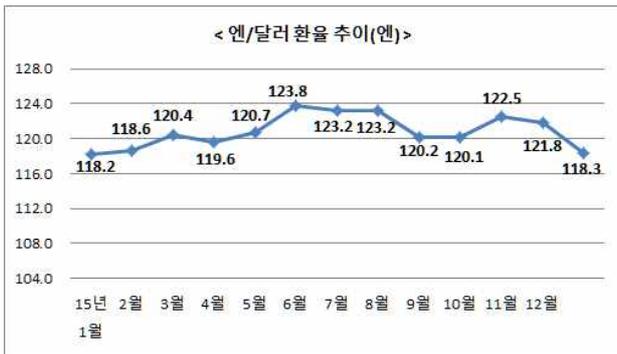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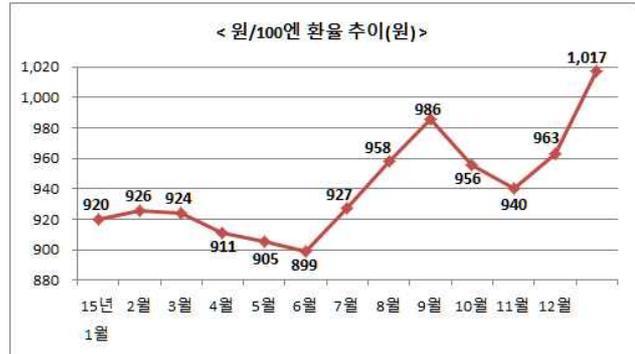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율)

- ‘16.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9% 하락한 118.3엔(엔고)
- ‘16.2월 들어서도 엔고세가 가속, 2월 24일 기준 111.97엔
-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의 영향에 따른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용불안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일본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엔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 금리의 재인상과 함께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엔저세로 반전될 전망
- ‘16.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17원으로 전월의 963원에 비하여 5.6%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 반전

□ **(동향)** 투자규모가 큰 미국에 대한 투자급증이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

○ '15년 12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349억 엔으로 전월비 6.3%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2014	2015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금 액	127,682	159,884*	37,100	39,888	38,427	44,471	16,619	13,503	14,349	
증가율	전기비	-4.6	25.2	-17.3	7.5	-3.7	15.7	34.2	-18.7	6.3
	전년동기비	-4.6	25.2	-11.4	39.6	112.5	-0.9	78.4	61.3	6.7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급증,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

○ 對 미국 투자는 전월비 391.7%의 최대 증가폭을 보임

○ 對 중국에 투자는 전월비 22.9% 감소

○ 對 한국 투자는 전월비 256.1%의 큰 폭으로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5							
			4분기		10월		11월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세계	159,884	25.2	44,471	15.7	16,619	34.2	13,503	-18.7	14,349	6.3
아시아	38,524	1.8	7,240	-44.0	1,741	-56.4	2,953	69.6	2,546	-13.8
중 국	10,685	48.5	2,825	32.2	898	27.0	1,088	21.2	839	-22.9
한 국	1,994	-40.1	-35	-	-409	-	82	-	292	256.1
북 미	54,363	16.4	21,098	77.2	11,564	118.5	1,679	-85.5	7,855	367.8
미 국	53,052	18.1	20,610	78.1	11,338	121.1	1,567	-86.2	7,705	391.7
중남미	11,165	48.6	789	-72.9	549	80.0	144	-73.8	96	-33.3
유 럽	42,635	54.8	14,262	57.8	2,188	-30.9	8,373	282.7	3,701	-55.8
대양주	10,165	68.9	393	-62.3	211	-54.8	206	-2.4	-24	-
중동	1,528	189.9	318	-30.4	117	200.0	92	-21.4	109	18.5
아프리카	1,504	-2.1	370	13.5	250	147.5	55	-78.0	65	18.2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2015년 11월 9일까지의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10조 44억 엔으로 9년 만에 과거 최고를 갱신

-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수액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과 영향

○ 2016년 2월 16일부터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의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키로 함

- 은행의 예금금리는 그대로 둠

□ 배경 및 의미

○ 중국경기의 둔화 및 경착륙 우려와 함께, 원유감산 실패 및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은행이 경기와 물가부진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1월 29일 금융정책위원회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

○ 당초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추가완화 논의를 한 것인데, 추가완화의 장단점을 검토한 끝에 금융완화의 새로운 틀로서 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금리(현재 0.1%)를 제로 가까이 또는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새로운 틀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음

- 물가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의 가격정책이나 임금교섭이 중요한데, 추가완화를 단행하는 경우 물가상승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신중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이제까지 2016년 후반경이라고 설정했던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시기를 2017년 이후로 보류가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갑자기 부상한 추가완화론은 2% 목표물가상승을 달성을 위한 일본은행의 강한 결의를 의미하는 측면도 있음

□ 주요 내용

○ 마이너스 금리하 양적·질적 금융완화 도입

- 민간금융기관이 일본은행 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하는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인하, 앞으로 필요하면 더욱 금리를 인하
-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3단계로 분할, 각각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 머니리베이스 통화량을 연간 80조엔으로 증가시키는 현행 금융시장 조절방침을 그대로 유지
- 현행 ETF(상장지수펀드)와 REIT(부동산투자신탁)등의 자산매입은 그대로 유지

□ 목적 및 기대효과

- 디플레이션(경기침체하의 물가하락) 탈출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물가상승 압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하 조치임
 - 양적완화보다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일본경제에 더 실효성이 높음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양적완화는 미국처럼 자본시장 중심 구조하에서 실효성이 높음
 - 이에 비하여 일본은 유럽과 같은 은행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대출 확대가 필요함
- 무엇보다도 일본의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용자나 주식투자 등에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져, 기업수익과 임금 개선을 통하여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상
 - 또 외국에 비하여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금리 차에 의한 엔고압력도 완화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추가완화의 여지도 한층 확대되었음
 -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양적·질적 금융완화로서, 양과 질, 그리고 금리의 3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명기, 가 일층의 추가완화 의지를 표명

- 미쓰비시 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투기적인 엔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3월 말까지 달러당 117-125엔 수준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마이너스 금리에는 부작용도 따름. 금리의 대폭 하락으로 은행의 수익력이 떨어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이 억제될 우려가 있음
 - 일본은행은 은행수익을 배려하여 당좌예금잔고를 3가지로 분할하여 이미 예치되어 있는 분은 종래대로 0.1%의 플러스금리를 적용
 - 일본은행은 이번 금융정책회의에서 정책목표인 물가상승율 2%의 달성시기를 종래의 2016년도 후반에서 2017년도 전반으로 연기
 - 일시적으로 바렐당 30달러이하로 떨어진 유가하락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7년도에 걸쳐 유가하락을 반영했기 때문임

□ 영향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조치가 나온 이후 엔화 가치는 가파른 약세를 보임
 - 1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장중 121.7엔까지 하락, 한 달반 만에 최저치 기록
-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대외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25엔 이상의 추세적인 엔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음
 - 세계 경제가 주춤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지속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여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중국과 EU도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만 독자적으로 금리인상을 지속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강한 달러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임
- 그러나 2월 9일 오후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지 열흘 만에 일본의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전일보다 0.05% 하락한 -0.010%), 유럽과 미국에서 신용불안이 재연됨에 따라 엔고 반전과 함께 일본주가가도 급락

-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에 대한 매입수요가 증가한 한편, 엔화환율이 한때 달러당 114엔까지 상승, 일본주가는 900엔 이상 하락
-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서 경합을 벌이는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업종이 타격을 입을 것임
-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시아 지역에 풀려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 전망

-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에 따라,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연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장의 혼란이 일단 수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일본의 금융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감으로써 당분간은 엔저·고주가 흐름을 띄기 쉬울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
-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금리 하락으로 엔저와 주가상승이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시장의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보다 금리가 높은 장기국채를 매입함에 따라 장기금리에도 하락압력이 걸리게 됨
- 또 외채투자가 증가하고 이것이 엔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경계감도 강함
- 엔화와 유로화의 하락으로 달러와 위안화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경기와 중국경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서 그 파장이 일본경제에도 미치게 될지 모름
- 다만, 마이너스 금리가 일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중립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1월 대일 무역적자폭 축소

□ (총 합)

- '16.1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315백만 달러 감소한 1,261백만 달러
 - 수출의 감소에도 수입의 감소폭이 매우 컸던데 따른 것임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9%에서 5.0%로 상승한 반면, 대일 수입의존은 전월의 10.5%에서 9.8%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4%에서 7.2%로 저하

< 2016년 1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071	-13.5	2.3	1,831	-18.7	-11.6
대일 수입	3,711	-16.8	10.9	3,092	-19.2	-16.7
무역 수지	-1,640	-425	321	-1,261	-315	-379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1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11.6% 감소, 1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
 - 동 기간 중 특히 일본의 수입증가율 -3.2%에 비하면 대일수출경쟁력이 부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12월	-13.5	2.3	-14.1	-4.2	-18.0	-2.6
2016.1월	-18.7	-11.6	-18.8	-13.6	-18.0	-3.2

- '16.1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금속광물 대신에 기초산업기계가 포함된 외에, 광물성연료 대신에 철강이 대일수출 순위 1위 품목으로 부상
- 기초산업기계, 기계요소공구·금형, 수송기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감소
- 광물성연료의 수출 감소폭이 26.3%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용전자제품의 수입 감소 폭도 20%이상으로 매우 컸음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기초산업기계의 대일수출 증가폭이 14.9%로 가장 컸음

< 2016년 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071	-13.5	2.3	1,831	-18.7	-11.6
1	철강제품	249	-4.9	10.2	223	-15.9	-10.4
2	광물성연료	289	-29.9	-0.7	213	-41.5	-26.3
3	전자부품	155	-29.5	-3.1	146	-21.5	-5.8
4	수송기계	128	29.6	19.6	136	34.8	6.3
5	산업용전자제품	133	-51.0	-1.5	100	-57.4	-24.8
6	정밀화학제품	110	-9.5	-17.3	98	-13.1	-11.0
7	기계요소공구·금형	81	9.8	2.5	84	8.4	3.7
8	석유화학제품	87	-16.6	4.8	78	-32.1	-10.3
9	기초산업기계	67	4.5	-15.5	77	14.4	14.9
10	금속광물	79	-7.3	-2.5	77	-9.7	-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6.1월 대일수입도 전월비 16.7% 감소, 전월의 10.9% 증가에서 큰 폭으로 반전
- 총수입의 감소폭 -11.4%에 비하여 대일수입의 감소폭은 큰 편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12월	-16.8	10.9	-19.2	4.1
2016.1월	-19.2	-16.7	-20.0	-11.4

- '16.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순위만 바뀐 가운데,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증가

- 9개 대일 수입 감소 품목 중 정밀기계의 감소폭이 40.1%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용전자제품, 산업기계,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이 20%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
- 유일한 대일수입 증가품목인 전자부품의 대일수입은 전월비 26.9% 증가

< 2016년 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5.12월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3,711	-16.8	10.9	3,092	-19.2	-16.7
1	전자부품	334	-42.6	-20.7	424	-17.9	26.9
2	철강제품	411	-27.2	12.6	380	-27.5	-7.5
3	정밀화학제품	362	-1.7	16.0	287	-0.6	-20.7
4	석유화학제품	375	-21.1	12.3	284	-28.2	-24.3
5	기초산업기계	268	-22.8	6.3	209	-20.2	-22.0
6	수송기계	243	4.0	25.3	182	-1.4	-25.1
7	플라스틱제품	192	-16.8	12.3	175	-12.0	-8.9
8	산업용전자제품	243	0.5	16.8	171	-10.6	-29.6
9	정밀기계	267	-7.6	71.2	160	-42.7	-40.1
10	산업기계	178	-4.9	11.9	130	-0.7	-27.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

□ (동향) '15.4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증가로 반전

- '15.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470백만 달러로 전기비 111.7%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의 증가율 73.7%를 크게 상회
 - 건수로도 전기비 17.9% 증가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5.1분기		2015.2분기		2015.3분기		2015.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85 (-17.5)	289 (-66.0)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79 (17.9)	470 (111.7)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558 (-25.2)	3,555 (-15.1)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774 (24.0)	7,639 (73.7)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주)가 일본 나이가이트랜스라인(주)로부터 총 1천 2백만달러를 투자받아 '16.10월 완공 목표로 물류센터를 건설
 -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주)는 일본의 무선박운송주선업계 1위인 나이가이트랜스라인(주)과 부산의 해운업체인 은산해운항공(주)이 합작 투자하여 '15.7월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2016.01.26. 서울일보)
- 일본에 본사를 둔 외국인투자 기업 솔섬(주)이 광양만권 내 16,500m² 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 철재구조물 및 기계류를 제작. 수출할 예정(2015.12.24.NEWSIS)
- 일본 미쓰비시전기와 미쓰비시상사가 한국 미쓰비시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총 305억 원을 투자(2015.12.15. 인천뉴스)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 등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하면서,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를 활용하고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대한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1월~2016.2월)

□ 국내 기관

-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의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2월15일
<http://www.hri.co.kr/storage/newReList.asp>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6년 2월10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3934&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2월5일
<http://www.hri.co.kr/storage/newReList.asp>
- 『[일본경제포럼]현장에서 지켜본 일본경제 25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2월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37&no=43656>
- 『[일본경제포럼] 저성장기 유통산업의 변화와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2월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56&no=43654>
- 『[일본경제포럼] 한일 경제 통상관계 현황』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2월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54&no=43653>
- 『[일본경제포럼] 한일 부동산 시장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2월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53&no=43652>
- 『[일본경제포럼] 2016년 한일경제 재도약의 조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2월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52&no=43651>
- 『IT기업 일본 시장 진출 내비게이터(Q&A集)』 KOTRA, 2016년 1월29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REL_AREA_CD=&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
- 『일본은행, 마이너스금리부 양적·질적금융완화 도입』 한국은행, 2016년 1월29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376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Japan Insight 75호 : 2016년 일본의 주목 이슈』 LG경제연구원, 2016년 1월28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6&ctype=g&grouping_seq=01040200_507
- 『일본 수출시장 분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1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44>

□ 일본 기관

- 『인더스트리 4.0에 일본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경제산업연구소, 2016년 2월23일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motohashi/15.html>
- 『인바운드 수요의 결정요인』 미즈호종합연구소, 2016년 2월20일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jp160219.pdf>
- 『2016년에 주목해야할 4개의 기술』 미쯔이물산전략연구소, 2016년 2월16일
<http://mitsui.mgssi.com/issues/report/r160215mt.pdf>
- 『국내외 제조업 변천에 관한 조사: 신산업집적창출기반구축지원사업』 경제산업성, 2016년 2월13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908.pdf
- 『증거에 기초한 정책동향의 영국사례와 일본에 주는 시사점』 미쯔비시UFJ 리서치 & 컨설팅』 2016년 2월13일
http://www.murc.jp/thinktank/rc/politics/politics_detail/seiken_160212.pdf
- 『국내에 공장을 갖지 않는 제조기업 : 일본의 실태와 특징』 경제산업연구소, 2016년 2월 11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6j006.pdf>
- 『일본기업의 글로벌화 과제 : 조정, 교섭 업무』 경제산업연구소, 2016년 2월11일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tomiura/01.html>
-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과 신아베노믹스의 실현가능성』 일본 참의원, 2016년 2월5일
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28pdf/201614602.pdf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동향』 일본 내각부, 2016년 1월30일
http://www5.cao.go.jp/keizai3/monthly_topics/2016/0129/topics_048.pdf
- 『일본 산업의 구조·경쟁력 변천과 경제위기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2016년 1월29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877.pdf
- 『사회적 이노베이션의 시스템 구축과 기업의 역할 모색』 후지쯔 종합연구소, 2016년 1월27일
<http://www.fujitsu.com/jp/Images/no427.pdf>
- 『2016년 세계경제와 일본의 대외 통상·경제관계 전망』 일본무역회, 2016년 1월27일
http://www.jftc.or.jp/shoshaeye/pdf/201601/201601_17.pdf

2. 주요 경제 일정

<2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4	• TPP 서명식(뉴질랜드)
8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의견교환 자료 공개 -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
	• 12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9	• 미일 항공 협상(~10일, 도쿄) - 하네다 공항과 미국 동쪽 지역의 직항 취항에 합의
15	• 중위원 예산위원회 심의
	• '15년 4분기 GDP 속보(내각부) : -1.4%
	• 日팔레스티나 정상회담(도쿄)
16	• 중위원 본회의에서 세제개정 관련 법안 심의 - 소비증세 시 도입할 경감세율제도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작 -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예금 일부의 금리를 -0.1%로 인하
17	•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 일반소비자 설명회(경산성)
	• 자동차 각사(노조) '16년 임금 협상 요구서 제출
	• 12월 기계 수주 통계 발표(내각부)
18	• 1월 무역통계 속보(재무성)
22	• 중위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각 정동 의견 수집
	• 중일의원회의(베이징) : 4년만에 개최
	• 경단련 TPP 관련 심포지엄 개최(도쿄)
26	• '15년 국세조사 속보(총무성)
	• 1월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7일, 상하이)
28	• 이집트 대통령 일본 방문(~3/2일) : 29일 일본국회에서 연설

<3월 예정 >

일자	주요 내용
1	• '16년도 예산 성립
8	•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도쿄)
29	• 안전보장관련법 시행
31	• 핵안보정상회의(~4/3, 워싱턴) :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